

의미론적 거리

이 정 우
철학자 / 시인

인식주체로서의 인간이 몸으로, 오감(五感)으로 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세계를 현실 또는 생활세계, '체형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이 세계에서 인간이 얻는 원초적인 인식질료는 이미지와 사건이다. 물질의 표면에서 현상(現象)하는 일정한 질(質)들이 이미지들이고, 행위의 계열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비물질적 존재들이 사건들이다. 이미지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사건들은 마음에 의해 상황으로부터 추상된다. 인식주체는 이미지와 사건을 즉자적으로 받아들여는데 그치지 않고 의미의 차원에서 이성을 통해 보다 고차적인 인식(법칙, 사유, 이론, 사상, 가설, ...)으로 가공한다. 이로부터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지/사건과 개념은 인식에 관련해서 그리고 인간=인식주체에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행하는가? 이 문제를 의미론적 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현실과 실재

논의의 전체 구도를 잡기 위해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대비시키기로 하자. 메를로-퐁티는 체형되는 세계야말로 참된 세계이며 과학이 제시하는 이론들은 이 세계로부터 추상화된 세계라고 말한다. 대조적으로 바슐라르는 진정한 과학적 인식이 가능하려면 체형되는 세계, 이미지의 세계와 '인식론적 단절'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 사람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조되며, 이 문제가 현대 인식론의 핵심 화두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지와 개념, 몸과 마음, 경험과 이론의 관계에 관련된 인식론적 문제이자, 물질적 존재와 탈물질적 존재에 관련된 존재론적 문제이자, 신체와 기호 그리고 의미를 둘러싼 기호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메를로-퐁티에게 실재는 체형되는 세계, 즉 인식주체와 세계가 주름잡혀 있는 세계이며, 이 세계는 또한 신체-주체와 의미복합체인 한에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이기도 하다.)¹⁾ 메를로-퐁티에게는 지각에 드러나 있는 현실이 곧 실재이다. 존재론적으로 다른 위상을 가진 존재들은 이 현실=실재로부터 추상화된 존재들이다. 여기에서 '추상화'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추상'이란 상(象)으로부터 뽑아낸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에는 풍부한 바탕과 그로부터의 마음질이라는 생각이 깃들여 있다. 추상작용은 인간을 현존에의 묶임에서 몸을 뺄 수 있게 해주며, 즉물적 지각으로부터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추상적 사유의 힘이 인간으로 하여금 사물의 조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사물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체의 눈길에 입각해 존재하기 시작하며, 사유는 지각의 세계에서 개념들과 함수들의 세계로 이행한다. 바로 이 때문에 베르그송,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등 근대 과학 기술 문명의 운명을 사유했던 인물들은 과학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지각된 세계와 개념, 함수로 추상된 세계에 관련된 인식론적 문제는 존재론적 지평으로 옮겨질 때

1) 김형호, 『메를로-퐁티와 애매성의 철학』(철학과현실사, 1996), 69쪽 이하를 보라.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메를로-퐁티는, 베르그송을 따라서, 추상된 존재가 추상되기 이전의 존재보

다 ‘덜’ 존재한다고, 덜 풍요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소금(식탁에 오르는 짠 음식물로서의 소금, 소금장수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담고 있는 상품으로서의 소금, 산서 상인들, 관우, 홍콩 폭력조직들 등과 연루되어 있는 일종의 상징으로서의 소금, 오줌싸개 어린이가 일종의 의례로서 얻어와야 했던 소금, ...)을 ‘NaCl’로 추상할 경우, 생활세계에서 지각을 통해 드러나는 소금‘들’의 다채로움과 풍요로움은 사상된다고 보는 것이다. 실재의 풍요로움과 인식의 빈약함, 이것은 베르그송, 메이에르송, 메를로-퐁티를 관류하는 기본적인 직관이다.

그러나 세 사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핵심적인 것은 메를로-퐁티에게서 실재는 “지각된 현실”이라는 점이다. 메이에르송의 경우 실재는 우주 전체이며, 지각된 현실은 그 한 단면일 뿐이다.(그리고 이것은 존재론적 탐구의 정향을 띤 대부분의 사유들에 있어 그렇다) 따라서 실재의 풍요로움과 인식의 빈약함이라는 테제는 메를로-퐁티와 메이에르송에게서 크게 상이한 향축을 띤다. 베르그송의 경우는 매우 미묘하다. 베르그송에게는 (『시론』에서 잘 드러나듯이) 의식을 가장 풍요로운 차원으로 보는 유심론적인 측면이나 지각된 세계를 ‘절대적인 질적 풍요로움’의 차원으로 보는 맥락(예컨대 『사유와 운동』에 수록된 「철학적 지각」의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베르그송에게 지각된 현실 및 의식, 기억은 실재 전체도 아니고, 가장 근원적인 실재도 아니다. 다만 실재의 가장 풍요로운 지점이다. 이 점에서 지각된 세계를 특권화하는 메를로-퐁티와도 또 지각된 세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나아가 참된 인식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는 메이에르송의 입장과도 다르다.

지각된 현실을 실재로 보는 한에서 메를로-퐁티의 사유는 중요한 난점을 야기시킨다. 이 난점은 그의 사유를 바슐라르의 그것과 대비시킬 때 선명하게 나타난다. 바슐라르는 풍요로운 현실과 빈약한 추상화라는 생각에 모호한 현실과 심층적인 실재라는 생각을 대비시킨다. 우리는 ‘NaCl’이라는 화학적 발견으로부터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수한 사실들과 조작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화학식에는 현상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소금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소금들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다. 슈뢰딩거의 방정식에는 미시세계의 복잡한 운동을 확률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역동성이 깃들어 있다. 이상기체 방정식에는 현상세계에서 느끼는 열 현상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잠재성이 깃들어 있다. 실재의 발견은 모호한 현실에서 탈피해 세계의 심층에 존재하는 수학적 질서를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재와 현실이 전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가설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네 적분상수는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과학의 역사란 바로 우리가 소박하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의 세계로부터 과학적 개념들의 세계로 도약해온 역사이다.

우리는 사건의 맥락에서도 유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개개의 사건들은 인식주체에 의해 파악된다. 그러나 그 사건들로부터 세계 이해의 일정한 틀이 추상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형성된 일정한 틀=계열화를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이해는 보다 넓은 계열화, 보다 많은 구체적 사건들을 경우들로서 포섭하는 계열화를 가지고서 사건들을 볼 때 실재에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미지와 사건들은 그것들보다 더 실재인 차원에 비추어졌을 때 비로소 명료한 의미를 드러낸다.

이 두 입장의 선명한 대조는 우리의 논의에 전체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롭게 언급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다. 바슐라르는 과학이 진정한 실재를 파악한다고 하는 입장 때문에 현상 세계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물론 메를로-퐁티도 지각된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서 추상적 사유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두 사람은 몇 걸음 다가서게 되며 문제가 좁혀진다. 이제 문제는 이미지와 사건의 세계와 개념들, 함수들, 그래프들의 세계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가 된다.

여기에서 스피노자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스피노자는 사물들에 대한 직접적 인식과 합리적 인식을 구분하고, 합리적 인식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직접적 인식의 의미 또한 상세하게 논한바 있다.(『에티카』, 2부, 명제 14 이하) 흥미롭게도 메를로-퐁티가 베르그송, 들뢰즈와 더불어 스피노자 사유를 잇고 있다면, 바슐라르 또한 ‘진정한 스피노자주의자’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맥락에서는 바슐라르의 입장이 스피노자의 그것에 더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바슐라르의 사원소의 현상학을 이해할 수 있다. 엠페도클레스가 ‘리조마타’ 또는 ‘스토이케이온’이라 불렀던 지수화풍(地水火風)은 인간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나는 원소들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이미지들과 사건들은 바로 이 사원소에 기반하고 있다. 동북아의 오행에 등장하는 나무[木], 쇠[金]까지 포함한 이 원소들에 관련된 이미지와 사건들이 현실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바슐라르는 이런 이미지들에도 의미를 부여해 독창적인 사원소의 현상학이 탄생하게 된다. 인식론에서 거부했던 현상학이 이 맥락에서는 방법론으로 다시 등장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원소’ 개념은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의미심장하다. 물, 불, 공기, 흙은 오늘날 더 이상 ‘원소(元素)’들이 아니기에 말이다. 몸을 통한 경험에 의존했던 고대적 지식에서 이 네 가지는 원소들이었으나, 오늘날 물과 불은 화합물이며 흙과 공기는 혼합물이다. 원소라는 말은 이들보다 더 심층적인 존재들로 인식되는 것들(수소, 산소, 탄소, 질소 등등)에로 이전되었다. 이런 변화는 담론사의 변화를 핵심적으로 드러낸다. 담론사는 지각된 세계에 대한 일상언어적 개념화의 양태에서 세계의 심층적(극미적-극대적) 차원에 대한 과학적 파악의 양태로 전개되어 왔다(이 점에서 현상학은 이런 흐름에 대한 일종의 반론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인식주체와 지각된 세계가 공존하는 차원, 몸의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비가시적인 차원으로의 상승/하강의 역사가 담론사의 역사이다.

이상의 논의를 매개로 우리는 의미론적 거리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의 인식은 언제나 인식주체의 차원과 인식되는 세계의 차원이 맞물리면서 전개된다. 이 맞물림은 몸과 현상세계라는 원점으로부터 그려지는 점차 커지는 원의 형태를 띤다. 세계의 보다 심층적인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은 동시에 인식주체의 어떤 잠재적 측면이 드러났다는 것을 뜻한다. 인식대상의 심층화와 인식주체의 심층화는 맞물려 전개된다. 우리는 이 원환의 반지름을 의미론적 거리라고 부를 수 있다. 의미론적 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인식의 결과로 형성된 기호체계가 몸의 차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론적 거리.

우리는 의미론적 거리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와 그 역사(= 담론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다. 사원소의 위상이 오늘날 화합물, 혼합물의 위상으로 변했다는 것은 담론사에서의 의미론적 거리가 그만큼 커졌음을 뜻한다. ‘형상(eidos)’ 개념이나 리(理) 개념의 진화 과정에서도 이런 변화과정을 읽어낼 수 있다. 의미론적 거리를 통해 담론사를 해명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담론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도 의미론적 거리의 개념은 필수적이다. 춤, 연극, 미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형이상학 등등 무수한 형태의 담론들에 있어 의미론적 거리를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개념을 통해서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해명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미론적 거리는 연속적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직접적 인식과 합리적 인식은 정도의 문제이지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플라톤적 사본법이든, 스피노자적 삼본법이든 이제 인식의 종류는 의미론적 거리에 따른 정도의 문제이지 불연속적인 대안들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체형된 세계로부터 고도의 이론적 세계(예컨대 아인슈타인이 꿈꾸었던 통일장 이론)에 이르기까지 ‘담론의 공간’은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이 담론의 공

간을 보다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눈길로 볼 필요가 있다.)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은 담론의 공간을 여러 층위로 나누어보는 시각을 제공해줌으로써 이런 사유에로의 길을 마련했다. 세르의 ‘헤르메스의 인식론’은 담론의 공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일구어내었다. 둘째, 의미론적 거리가 크다는 것이 반드시 실재에 다가섰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의미론적 거리가 가치론적 위계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왜인가? 큰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이 작은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을 자체에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한 단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슐라르는 ‘인식론적 지위/위상’을 논했다. 그러나 인식론적 지위/위상을 뚜렷하게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으며, 일정한 구체적 맥락을 잡았을 때 가끔씩 가능할 뿐이다. 분명 통계역학은 열역학보다 우월하다. 열역학의 법칙들은 통계역학의 법칙들로 정확히 환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매끄러운 수학적 환원에도 불구하고 두 담론체계의 개념들, 원리들이 완벽한 환원관계를 형성하는가? 기체들의 운동으로 표면적인 열이 완전히 환원되는가? 개념적 환원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푸코는 프롤레타리아라는 타자를 넘어서 여러 형태의 타자‘들’을 발견함으로써 맑스를 넘어서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라는 다른 맥락에서 볼 때 그는 맑스보다 못하다. 같은 계통의 담론에 있어서도 사정이 이렇진데, 이질적인 담론들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기계론, 사회생물학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선부론 환원주의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메트로-폰티처럼 생활세계를 절대화할 수 없듯이, 과학이 발견해내는 세계 또한 절대화할 수 없다. 다양한 담론들이 발견해내는 세계들은 모두 존재의 어떤 단면들, 얼굴들이다. 다만 어떤 담론이 드러내지 못하는 얼굴을 다른 담론은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다양한 담론들은 가시(可視)와 비가시(非可視)의 다양한 이질적인 경계선들 위에서 작업한다. 존재가 주름이라면 다양한 담론들은 그 무한한 주름의 어느 한 얼굴을 보고 있을 뿐이다. (“道可道非常道”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한 담론이 펼쳐내는 얼굴을 다른 담론은 접어넣는다. 현실과 실재 사이에는 단절이 없다. 주름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이미지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상형문자인 한자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알파벳 역시 그림에서 출발한다(예컨대 A는 황소의 머리를, B는 집을 본딴 것이다). 최초의 사유들은 의미론적 거리의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른바 ‘기축시대’에 이미 극히 큰 의미론적 거리를 떠난 담론들이 출현한다. 그리스 철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처음에 사물의 외관을 가리키던 말이, 점차 그 내적 속성들을 가리키게 되고, 결국에는 사물의 본질을 뜻하게 되는 이 변화과정은 의미론적 거리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때 형성된 큰 거리와 작은 거리들(일상적 인식들) 사이는 촘촘히 메워지지 못했으며, 이렇게 매우 성긴 의미론적 거리에 관련해 우리는 “사변적”이라는 수식어를 쓴다. 어쨌든 언어는 시대가 갈수록 점차 새로운 의미론적 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의미론적 거리는 작위화(作爲化)의 거리와 대체적으로 비례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의미론적 거리의 역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세계사와 맞물려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의미론적 거리는 담론적 실천에서 문제시된다. 일반적인 역사는 신체적 실천에서 문제시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역사는 순수한 신체적 실천에서 출발해 점차 커지는 작위화의 거리를 겪었으며, 그 과정은 곧 담론적 실천과의 맞물림을 함축한다. 또 이로부터 중요한 하나의 논리적 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언어를 역사에서 추상해 논리공간에 놓고서 다루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한 역사의 한 경향일 뿐이다. 담론적 실천과 의미론적 거리는 신체적 실천과 작위화의 거리와 맞물려 역사 전체를 구성한다. 역사의 사상(捨象)은 그 자체 역사의 한 국면일 뿐인 것이다.

만일 모든 언어들이 나름대로의 의미론적 거리를 함축하고 있다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번역과 수사(修辭)의 문제를 재론할 수 있다. 예컨대 은유는 무엇인가? 은유는 서로 다른 의미론적 거리를 중

접시킨다. 무(無)를 '심연(深淵)'으로 표현한다면, 극히 큰 의미론적 거리가 보다 작은 의미론적 거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은유는 담론공간 위에서의 위상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연'의 의미론적 거리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이 말은 몸의 세계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몸을 끝없이 끌어당기는 깊은 구멍,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정(心情),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텍스트, 어쩌면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그것의 의미론적 거리를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은유일지도 모르겠다. 번역이나 수사는 무수한 의미론적 거리들을 가로지르는 일일 것이다.